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10일)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청소년포교 지각변동 '탈학교화' 대비하라

학내 청소년단체 활동 제한, 불교계 대책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학교 내 청소년활동을 통해 진행해 온 청소년 포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업무 제외 방침으로 청소년단체의 '탈학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서 제외하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렸다.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카우트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에 학교가 손을 떼는 대신 해당단체나 지역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15개 청소년단체 중 불교계 단체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있다.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 사라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같은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자체 활동과 함께 10년 넘게 학교를 기반에 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일선 사찰의 청소년법회와 함께 불교 청소년단체의 학내 교육활동을 통한 간접 포교는 청소년 불자 양성의 큰 힘이었다.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도 인력의 이탈이다. 학교 지도교사들의 청소년단체 참여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업무분장 제외 지침에 앞서 청소년단체 활동 시 지도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 가산점을 2021년에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활동의 대입 전형 이점도 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동아리 기록을 학년 당 1개만 쓰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만 적을 수 있다.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크게 교육부 교육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청소년 정책은 이제 학내 활동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불교계가 그동안 학교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포교전략을 꾸려왔다면 이제 평생교육에 맞는 포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쉼터 운영 등 대안 제시

탈학교화로 인한 불교 청소년단체는 어떤 청소년 포교를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꼽히는 방안은 불교계의 청소년쉼터 운영이다.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은 불교계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사례로 은평구에 위치한 '꿈꾸는 다락방'을 꼽았다. '꿈꾸는 다락방'은 음악 교육과 함께 밴드 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대성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생활 포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와 교육센터나 대안학교 등에 불교계의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곤 사무국장은 "사찰의 현실을 볼 때 단기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울시,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업무서 제외 지침
파라미타 · 청교련 '직격타'

평생교육으로 정책 변화
포교 방안 재수립 불가피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을"

서울에만 40여 단기위탁형 대안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최근 나란타대안학교가 폐지되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전무하다. 사찰 유휴공간과 퇴직 불자교원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꾸준히 개발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활동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 자원봉사가 있다. 아직 불교계에서 사찰단위 참여는 적은 상황"이라며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제는 온라인상에서 봉사활동 정보 검색과 확인까지 가능해 교육부와도 연계되는 만큼 청소년법회 등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호국 군승 원력을 기리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현충원에서 순직군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한 재경지역 군법사 10여명이 참여해 묘역에 헌화하고 불교의식을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은 "우리 군승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순직한 선배 군승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과 군포교 원력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6월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 선정

국가보훈처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승려인 독립투사"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용운 선생을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해 불교 혁신운동을 일으킨 주역 △1919년 종교계를 중심으로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 참여 △불교계 〈독립선언서〉 배포 및 만세운동 동참 권유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 논설 집필 △석방된 뒤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상무위원 활동 △민족교육 위한 사립대한 건립운동 앞장 △신간회 창설에 발기인 참여 및 경성지회장 활동 △창씨개명과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등을 만해 스님의 공적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한편 재단법인 선학원은 만해 스님 입적 75주기를 맞아 6월 22일 나루아트센터서 만해예술제를, 29일 AW컨벤션센터서 만해추모제를 개최한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6월 한 달간 특별기획전시장(제5 · 6관 통로)에서 만해 스님 사진 등 전시회를 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애도"

대변인 명의 애도문 발표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에 조계종이 애도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5월 31일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유람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무엇보다 사고로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속이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사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국민이 머나먼 타국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슬픔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분들과 국민들의 슬픔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2천만 불자 모두가 함께하겠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실종자 분들의 무사생환을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재영 위원이 제시한 '재가불교운동 성공조건' A3 | 한국명상지도자협, 2019한강명상걷기대회 A5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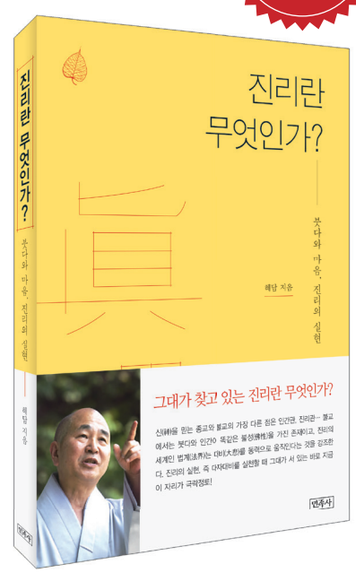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